

주간 규제 정보

Vol. 291

2020. 04. 13 ~ 2020. 04. 19



목차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 1.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3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 2. 일본, 2종의 독성물질과 14종의 유해물질을 추가한 개정 시행령 WTO에 통보 4
- 3. 미국 인디애나주, PFAS 물질을 함유한 소방거품 사용 금지 법안 제정 5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 4.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동향 5
- 5. 일본 정밀주조품 시장동향 10
- 6.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유제품시장 14
- 7. 터키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 동향 19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국가기술표준원(<http://kats.go.kr/>)

1.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KC·KS 인증부담 경감조치, 기업의 코로나 위기극복 지원

❶ 전기·생활용품 등 KC 안전인증 절차 간소화 ❷ KS 인증 유효기간 연장 및 특별심사반 운영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우리 기업들의 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시험인증 분야의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제품 생산·유통을 지원하면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KC 안전인증 및 KS 인증의 공장심사 한시적 보류 등 행정조치를 취함.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른 KC 안전인증 품목*은 공장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여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함.

* (기존) 공장심사+제품검사 → (변경) 제품검사만으로 안전인증 先 발급 (대상품목) 총 46개(전기용품 37개, 생활용품 5개, 어린이제품 4개)

4월 현재 동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절차 간소화로 KC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294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됨

KS 인증의 경우 코로나 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공장심사 보류조치를 통해,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조사됨.

* (대상품목) 총 802종(기계 133종, 전기전자 178종, 금속 110종 등)

대구·경북 등 코로나 19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이 곤란한 지역의 신규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입찰 및 수주활동을 위해 긴급 심사 요청시, 특별 심사반*을 구성하여 심사를 실시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지원 실시중

* 인증심사원의 개인위생 철저(마스크·장갑 착용 등) 후 신규심사 진행

금번 조치는 당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2월초)하였으나, 2월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2월 24일부터 국내 전 지역으로 대폭 확대 시행중이며, 시장 출시를 위한 법정 의무조건 및 납품조건으로 규정된 KC·KS 관련, 선제적인 행정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원활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도록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주요 사례]

- KC인증(신규): 공장심사 한시적 유예 조치로, 납품계약 파기 없이 납품일정에 맞추어 안전인증 취득 후 2천만원 계약 성사
- * 강원 춘천 소재 H社は 콘센트 제조업체로 OO社 제품 납품 완료
 - KS인증(기존): 창호업체는 KS인증 유효기간 만료로 입찰 취소 위기였으나, 금번 유효기간 연장조치로 1.2억원 계약체결 성사
- * 천안 소재 C社は 문세트·창세트 제작업체로 아파트 건설공사에 입찰 성공
 - KS인증(신규): 심사 자제지역(대구·울산 등) 소재 LED 업체 N社 요청으로, 특별심사반 구성 및 심사 실시, KS인증 취득 후 2억원 계약 성사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코로나 19 상황이 안정화 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하여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KC 공장심사 및 KS 심사를 재개하여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면서, 앞으로도 국내 기업들의 위기 극복을 위하여 표준, 제품안전, 시험인증, 기술규제대응 분야에서 기업의 현장 애로 요인을 적극 발굴해 나갈 예정임

한편, 기업들은 「1381 인증표준정보센터」를 통하여 이번 KC·KS 행정조치를 포함, 국내외 인증·표준 관련 정보 및 기업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출처([국가기술표준원](#))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www.compass.or.kr)

2 일본, 2종의 독성물질과 14종의 유해물질을 추가한 개정 시행령 WTO에 통보

2020년 3월 19일, 일본 후생노동성(MHLW)*은 2종의 독성물질 및 14종의 유해물질을 추가한 독성, 유해물질 지정 개정 시행령**을 WTO에 통보하였습니다.

*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 Amendment to the Poisonous and Deleterious Substances Designation Order

독성물질, 독극물질로 지정된 16종의 물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종의 독성물질(Poisonous Substance)

No.	화학물질	CAS번호
1	COBALT(II) OXIDE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307-96-6
2	Dibutyl(dichloro)stannane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683-18-1

○ 14종의 유해물질(Deleterious Substance)

No.	화학물질	CAS번호
1	1-Aminopropane-2-ol 및 동 물질을 4% 이상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78-96-6
2	2-Isobutoxyethanol 및 동 물질을 10% 이상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4439-24-1
3	Oxirane-2-ylmethyl=metacrylate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06-91-2
4	1-Chloro-4-nitrobenzene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00-00-5
5	2,4-Dichlorophenol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20-83-2
6	Nonylphenol 및 동 물질을 1% 이상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25154-52-3
7	1-Vinyl-2-pyrrolidone 및 동 물질을 10% 이상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88-12-0
8	Ammonium fluoride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2125-01-8
9	Sodium fluoride 및 동 물질을 6% 이상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7681-49-4
10	Benzene-1,4-dicarbonyl dichloride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00-20-9
11	Benzoyl chloride 및 동 물질을 0.05% 이상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98-88-4
12	Methanesulfonic acid 및 동 물질을 0.5% 이상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75-75-2
13	Sodium bisulfide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6721-80-5
14	Sodium sulfide (Anhydrous) 및 동 물질을 함유하는 조제용 물질	1313-82-2

동 개정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이 2020년 5월 18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emical.com/news/6815a0-16ba-407d-8374-a29df7c30/japan_Amendment_to_the_Poisons_and_Deterious_Substances_Designation_Order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3. 미국 인디애나주, PFAS 물질을 함유한 소방거품 사용 금지 법안 제정

2020년 3월 11일, 미국 인디애나주는 PFASs*가 함유된 소방거품 사용 금지법안*을 주지사의 승인을 얻어 최종적으로 제정하였습니다.

* Perfluoroalkyl substances and Polyfluoroalkyl substances

** HB 1189

본 법안은 2020년 6월 30일부터 PFASs가 함유된 소방거품을 소방 훈련을 목적으로 개인 및 기관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또한 시험기관은 PFASs가 함유된 소방거품이 누출되지 않도록 적절하게 저장, 처리,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시험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PFASs를 함유한 소방거품의 제조, 판매 및 배포는 금지하지 않으며, 사전 예방이나 긴급한 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iga.in.gov/legislative/2020/bills/house/1189>

©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뉴스는 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출처([국제환경규제기업지원센터](#))

KOTRA 해외시장뉴스(<http://news.kotra.or.kr/>)

4.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동향

-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생산량 지속적으로 상승 -
- 단백질 음료 중 호두를 첨가한 음료제품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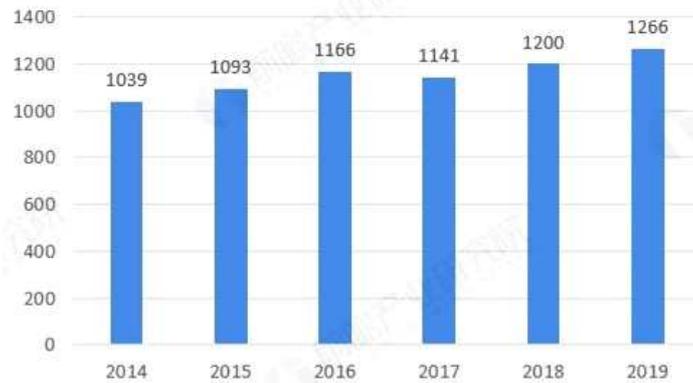
상품명 및 HS Code

HS CODE: 22029900.99

□ 시장규모 및 동향

-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규모 1266억 위안(한화 약 22조)
 - 중국 소비자의 생활수준 향상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백질 음료의 영양소가 풍부하고 몸에 좋은 이미지로 수요가 증가되고 있음.
 - 2019년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규모는 1266억 위안에 달함.

2014-2019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前瞻网

-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생산량 점진적으로 상승
 - 2014년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생산량은 56.26억 L에 불과했음.
 - 2019년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생산량은 약 87.84억 L에 도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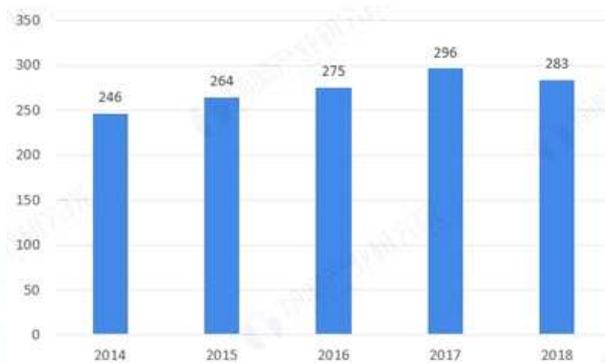
2014-2019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생산량 및 증가속도
(단위: 억 L, %)



자료: 前瞻网

- 중국 내 식물성 단백질 음료를 생산하는 기업은 많지만 규모는 크지 않음
 - 중국의 식물 단백질 음료 산업은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식물 단백질 음료 산업군에 종사하는 기업이 많은 편임.
 - 2019년 기준, 중국 내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생산기업은 약 4074개사임.
 -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생산기업 중 규모이상 기업(판매액이 2000만 위안 이상의 기업)은 2018년 기준으로 283개사로 많지 않은 숫자임.

2014-2019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산업 규모이상 기업 수
(단위: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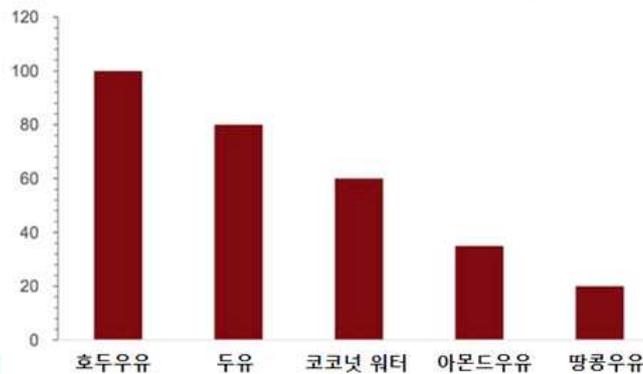


자료: 중국 음료공업협회

○ 호두를 첨가한 우유제품이 가장 인기

- 중국의 식물성 단백질 음료의 제품 종류는 주로 호두우유, 아몬드우유, 땅콩우유, 코코넛 워터, 두유 등이며 그 중 호두우유의 시장규모가 가장 크고, 두유 및 코코넛 워터가 뒤를 이음 .

중국 식물 단백질 음료 제품별 주요기업 판매액 규모
(단위: 억 위안)



자료: 招商证券

○ 제품들의 지역특징이 매우 뚜렷함

- 원재료 공급원의 차이로 인하여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의 생산 구조는 뚜렷한 지역적 특색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은 콩을 많이 재배하기 때문에 두유생산이 비교적 빠르게 시작되었으며, 그렇기 때문에 두유생산 기업이 많은 편임.
- 예슈(椰树)와 청더루루(承德露露)라는 기업은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에 비교적 일찍 진출했으며, 지역 특산물의 장점을 살려 시장을 공략했고, 현재는 “남(南)예슈, 북(北)루루”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각각 중국 코코넛 워터 및 아몬드 음료의 시장을 독점 하고 있음.
- 양위안(养元) 및 인루(银鹭)라는 기업 역시 지역특산물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였으며 각각 호두우유, 땅콩우유 제품을 개발했음.

□ 주재국 수입동향

- 최근 3년 수입규모 및 상위 10개 국가/지역 수입동향

중국 (HS Code: 22029900 기준) 주요 수입지역 현황

(단위: 천 불, %)

순위	국가/지역명	2017년	2018년	2019년	증감률('19/'18)
-	총액	32623	452941	576985	27.4
1	대만	60589	104293	132392	26.9
2	한국	53470	67683	99668	47.3
3	미국	15863	54280	75729	39.5
4	일본	17344	26138	53459	104.5
5	태국	45172	52918	44905	-15.1
6	홍콩	32090	30475	35786	17.4
7	호주	19637	27562	23043	-16.4
8	베트남	11366	18697	21337	14.1
9	독일	7516	15468	17080	10.4
10	스페인	7590	9504	10533	10.8

자료: KITA

○ 대한민국 수입액 추이

중국 (HS Code: 22029900 기준) 대 한국 수입액 추이

(단위: 천 불, %)

구분	2017년	2018년	2019년
수입액(천불)	53470	67683	99668
증감률(%)	-	26.6	4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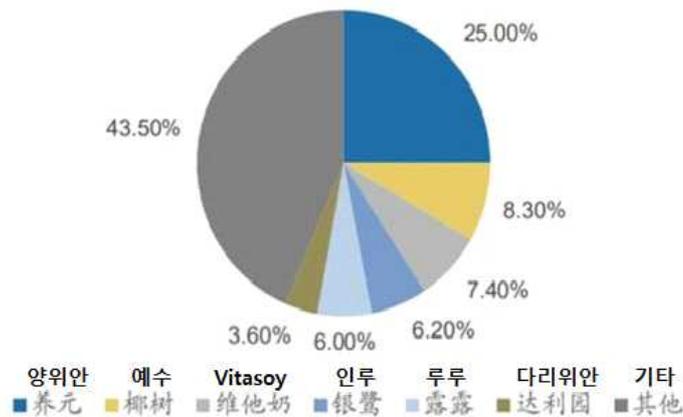
자료: KITA

□ 경쟁동향

○ 현재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상위 5대 기업은 양위안(养元), 예슈(椰树), Vitasoy(维他奶), 인루(银鹭), 및 루루(露露) 순으로 해당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52.9%에 달함.

- 그 중 양위안(养元)이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산업 시장 집중도



자료:广发证券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인기 브랜드 및 제품

순위	브랜드	제품명	제품 이미지	가격
1	류거허타오 (养元·六个核桃)	호두우유		66위안 (240ml/개*20)
2	예슈 (椰树)	코코넛워터		102위안 (245ml/개*24)

3	Vitasoy (维他奶)	두유		59.8위안 (250ml/개*24)
4	인루 (银鹭)	땅콩우유		33.9위안 (250ml/개*16)
5	루루 (露露)	아몬드 음료		80위안 (240ml/개*20)
6	도우번도우 (达利园·豆本豆)	두유 음료		36.9위안 (250ml/개*15)
7	웨이웨이 (维维)	두유 음료		120위안 (300ml/개*24)
8	즈산 (伊利·植选)	두유 음료		48위안 (250ml/개*12)

자료: 京东

○ 유통구조

- 식물성 단백질 음료의 유통은 마트, 편의점, 식품 전문매장 등 소매를 통해 판매되는 뿐이 아니라, 식당 등 음식점을 통해 유통하기도 함.
-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보편적으로 많이 판매되고 있음.

□ 관세율

○ HS CODE: 22029900.99

- APTA(아태5국) 적용세율:

관세(아태5국)	4.2%
증치세	13%

- 한중FTA 적용세율:

관세(한중FTA)	5%
증치세	13%

- MFN 적용세율:

관세(MFN)	5%
증치세	13%

자료: 중국해관

□ 인증

○ 중국어 라벨

- 중국에서 수입되는 모든 포장식품은 중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함.

- 중국어 라벨에는 원산지, 중국 내 대리상 상호명,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해야 하며 중국어 라벨은 보통 검역·통관 대행사를 통해 심사·등록함.

○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 등록

- 대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수출 시 중국 검역·통관 대행사를 통해 중국해관에 수출기업 및 수입기업 사전 등록을 해야 함.

○ 검역증명서(위생증서)

- 중국에서 수입제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함. 식물성 단백질 음료 제품은 중국해관에서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받아야 시장에서 판매 가능함.

□ 시사점

○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산업은 앞으로 비교적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보임

- 현재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의 1인당 소비량(3.2kg)은 대만지역(5.3kg)과 홍콩지역(11.3kg)에 비추어 볼 때 여전히 확대 여지가 있음.

○ 중국 식물성 단백질 음료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

- 기존에 시장에 진출해 기업 외에도 명뉴(蒙牛), 이리(伊利), 코카콜라 등 유명 우유 및 음료 생산 그룹도 현재 관련 시장에 연이어 진출하고 있음.

○ 제품 고급화 추세

- 양위안(养元), 루루(露露)는 품질 고급화 전략을 도모하고 있음.

- 양위안(养元)은 2019년부터 지속적 고급제품을 출시하고 있음. 머리를 많이 쓰는 일을 하는 학생이나 회사원을 타겟팅하여 중국질병예방센터의 전문 과학적 레시피를 사용해 호두의 영양을 고도로 농축시켜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출시하였고, '하루 한 캔'이라는 문구로 홍보하고 있음.

○ 무첨가 제품 주목

- 산동성 식품 판매업체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중국 소비자가 식물성 단백질 음료에 대한 수요 키워드는 “무첨가, 식물100%, 저당, 비유전자변형, 천연제품, 저지방”임. 관련 업체는 건강한 소비 트렌드에 맞춰 고품질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시장을 타겟팅 해야 함.

자료: 前瞻网, KITA, 招商证券, 중국해관 및 칭다오무역관 자료 종합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5. 일본 정밀주조품 시장동향

- 일본 정밀주조품, 국내 생산량 지속적인 감소세 -
- 해외수입품의 품질 향상과 수입 증가가 배경 -
- 대일 진출의 팀, 고부가가치형 주조품에 주력해야 -

□ 제품명 및 HS code

- 제품명 : 정밀 주조품

○ HS Code : 8481.90(부분품)

□ 시장 규모 및 동향

- 일본 국내 생산량은 지속적인 감소세
 - 2019년의 정밀주조품의 생산량은 전년대비 17.7%가 감소한 약 4,157톤이며 생산액은 전년대비 7.9%가 감소한 450억 6,100만 엔임.
 - 제품별로는 차량용 주조품이 정밀 주조품 생산량의 56%를 차지하여 생산비중이 가장 높음.
 - 정밀주조품의 생산량 감소 요인은 자동차의 해외 생산 이점 증가 및 해외 조달의 증가로 사료됨.
 - 항공기·군수용 정밀주조품의 수요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의 확대가 기대되나, 현재로서는 시장이 크게 형성되지 않은 상황임.

과거 3년간의 정밀 주조품 생산량 생산액 추이
(단위 : Kg, 백만 엔)

		2015年	2016年	2017年	2018年	2019年
가스터빈용	생산량	750,885	557,068	532,165	610,983	724,377
	생산액	20,518	14,418	14,191	16,041	19,564
일반기계용	생산량	722,922	651,879	782,275	770,461	739,868
	생산액	4,990	4,667	5,278	5,388	4,811
자동차용	생산량	4,029,456	3,888,726	3,815,737	3,270,697	2,331,688
	생산액	22,607	2,3416	23,461	21,943	15,278
항공기·군수용	생산량	90,469	102,916	81,404	85,809	106,049
	생산액	3,163	3,294	2,595	2,523	2,638
기타	생산량	267,035	240,574	281,129	314,889	256,477
	생산액	2,697	2,377	2,913	3,049	2,767
합계	생산량	5,860,767	5,441,160	5,492,710	5,052,833	4,157,459
	생산액	53,973	48,172	45,414	48,944	45,061

주 : 종업원 30명 이상의 공장 대상

자료 : 경제산업성 '철강·비철금속·금속제품 통계 월보'를 바탕으로 오사카무역관에서 작성

□ 경쟁 동향 및 주요 경쟁기업

- IHI Casting, 생산라인 증강
 - 항공기용 제트 엔진, 우주용 기기, 산업용 가스터빈, 차량용 및 선박용 과급기(過給機) 등에 사용되는 정밀 주조품을 제조하고 있는 IHI Casting는 항공기용 제트 엔진을 포함한 각 분야의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국내 공장을 증설
 - 일본 국내 항공우주분야의 최대 정밀 주조품 제작회사로서 알려져 있으며 향후 분말 야금, 적층조형(積層造型) 등 신공법을 도입해 갈 방침임.
- King Parts, 소량 주문에 대응하여 경쟁력 제고 및 매출액 증가
 - 금형, 주조, 가공완성까지 사내에서 일괄생산하며 시제품(試作品)에 대해서는 3주 내에 납품함.
 - 5개부터 주문을 받아 다품종, 소량 주문에 대응하고 있으며, 2018년도는 이익률이 전년대비 2.2대로 확대됨.

주요 경쟁기업 정보

기업명	종업원수	주된 납품처

Daido Castings	614명	Mitsubishi Heavy Industries, JR East, JR Tokai, Toyota, Honda
Hitachi Metals Precision	387명	Hitachi Kinzoku
King Parts	366명	Toshiba, Hitachi, Mitsubishi Industries, Tungaloi
IHI Casting	364명	IHI, Mitsubishi Hitachi Power Systems, Siemens ITL 외
Castem	275명	SMC, Tokyo Seimitsu, Max
Taenaka Kogyo	200명	Nippon Steel, Mitsubishi Shoji
Juki Aizu	181명	Hitsui Shoji, Koki Holdings, Japan Chain Terminal
Yamagata Seimitsuchuzo	173명	Okaya Koki, Maruyasu, Yamaha
Seiwa Seisakush	40명	Nippon Ball Valve, Denpa Kogyo
HAYASHI LOST-WAX	30명	Kitz, Ebara, SMC

자료 : 기업 홈페이지, 일본주조협회 홈페이지, KOTRA오사카무역관 자체 자료

□ 수출입동향

○ 전체 수입액

- 2019년 일본 정밀주조품(HS code 8481.90 기준) 수입규모는 전년대비 2.57% 감소한 6억 9,004억 달러를 기록
- 자동차 부품 수요 감소가 주요 감소원인으로 사료되며 중국 외에 독일, 대만에서의 수입이 감소하였음.
- 대한수입액은 전년대비 8.05% 증가한 5377만 달러로 3년 연속으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

정밀 주조 시장 주요 수입국 현황(HS Code 8481.9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9/2018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총계	627.17	708.22	690.04	100	100	100	-2.57
1	중국	294.93	335.34	308.55	47.03	47.35	44.72	-7.99
2	미국	72.74	65.26	77.21	11.6	9.21	11.19	18.32
3	베트남	38.94	46.90	56.37	6.21	6.62	8.17	20.17
4	한국	48.23	49.77	53.77	7.69	7.03	7.79	8.05
5	독일	33.60	44.37	34.80	5.36	6.26	5.04	-21.55
6	대만	29.85	35.76	32.48	4.76	5.05	4.71	-9.16
7	태국	21.65	30.62	32.40	3.45	4.32	4.7	5.81
8	필리핀	22.62	25.47	25.95	3.61	3.6	3.76	1.86
9	인도	8.76	11.18	12.69	1.4	1.58	1.84	13.43
10	스위스	12.81	10.15	10.43	2.04	1.43	1.51	2.75

자료: WTA

○ 전체 수출액

- 2019년 일본 정밀 주조품(HS code 8481.90 기준) 수출규모는 전년대비 3.01% 감소한 6억 8억 6,529만 달러를 기록.
- 주요 수출국은 중국, 미국, 태국, 한국이며, 중국과 미국이 전체 수출시장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5732만 달러로 전체 수출국 중 4위를 기록

정밀 주조 시장 주요 수출국 현황(HS Code 8481.90 기준)
(단위: US\$ 백만, %)

순위	국명	수입액			점유율			증감률
		2017	2018	2019	2017	2018	2019	2019/2018
	총계	848.77	892.10	865.29	100	100	100	-3.01
1	중국	296.43	304.4	327.71	34.93	34.13	37.87	7.65
2	미국	105.99	106.84	99.03	12.49	11.98	11.45	-7.31
3	태국	58.88	74.16	64.47	6.94	8.31	7.45	-13.06
4	한국	48.81	52.19	57.32	5.75	5.85	6.62	9.82
5	멕시코	52.19	58.03	47.38	6.15	6.5	5.48	-18.35
6	베트남	56.13	53.47	46.97	6.61	5.99	5.43	-12.17
7	프랑스	29.57	24.74	29.47	3.48	2.77	3.41	19.1
8	인도	14.31	18.37	18.80	1.69	2.06	2.17	2.35
9	벨기에	18.59	19.67	16.12	2.19	2.21	1.86	-18.04
10	싱가포르	14.94	16.38	15.89	1.76	1.84	1.84	-3.01

자료: WTA

□ 유통구조

- 원가삭감을 위해 중간 거래처(상사)를 통하지 않는 직접 거래가 많음. 다만 대기업 중에서는 부문(제조 공장)마다 조달 방침이 달라, 일본 상사를 통해 수입품을 사용하는 곳도 있음.

□ 관세율, 수입규제, 인증

○ 관세율

- 기본 관세율은 '무세'이며 통관 시 소비세 10%가 부과됨.
- 우리나라는 WTO 가입국이기 때문에 WTO 협정 관세율인 '무세'가 적용됨.

수입관세율표

HS code	세율	단위	비고
8481.90	무세	CIF	세관통관 시 (CIF+관세)×10%의 소비세가 부과됨.

자료 : 일본관세협회「실행관세율표2020」

* 관세율표: <https://www.customs.go.jp/tariff/index.htm>

○ 수입규제 및 인증

- 특별한 수입규제는 없음.
- ISO 9001, ISO14001, TS16949, AS9100 등의 품질인증 취득이 유리

□ 마케팅 방안

○ 전시회 정보

전시회명(현지어명)	第23回 [関西]機械要素技術展
전시회명(한국어)	제23회 [관서]기계요소기술전
전시품목	공장설비, 제조솔루션, 기계부품, AI/Iot, 3D프린터, 센서, 검사 및 계측기기, 의료기기 및 헬스케어 외
개최국가/도시/개최주기	일본/오사카/연 1회
규모(참가업체수)	내방객 수 : 4만명, 참가기업: 1375개사
개최기간(2020년)	2020년 10월 7일(수)~2020년 10월 9일(금)

□ 시사점

○ 한국제품의 경쟁력

- 한국에서 정밀 주조품을 수입하고 있는 일본 A사 담당자에 의하면, 정밀주조품의 가격은 한국제보다 대만제가 20%정도 싸지만, 한국제가 정밀도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함.
- 특히 한국제는 제작이 어려운 제품이 경쟁력이 있고 신뢰도가 높다고 함. 그러나 일본제와 비교했을 때 불량률이 높고 납기 등의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고 함.

○ 대일진출의 기회

- 일본은 같은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하는 숙련공이 많아 높은 품질을 보증함. 하지만 3D업종으로 평가되어 젊은 인재의 유입이 적고, 해외 제품과 비교했을 때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언제까지 일본기업이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임.
- CO2 배출 제약 강화 등으로 클린 에너지에 대한 의식도 더욱 높아졌으며, 제약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음.
- 전력 소모가 많은 주조 산업은 에너지 비용 증가 및 배출 규제 강화로 앞으로 힘든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망

- 해외 조달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정밀 주조품의 절반을 차지하는 차량용 주조품은 EV보급에 의해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알루미늄과 마그네슘 주물 등 고부가가치형 주조품과 밀폐중공조물, 초박형조물 등 EV와 로봇, 스마트 디바이스 등에 사용되는 주조품 수요 증가에 대응해 갈 필요가 있음.

자료 : 일본주조협회 홈페이지, WTA, 일본관세협회 홈페이지, KOTRA오사카무역관 자체 자료, 경제산업성 '철강·비철금속·금속제품 통계월보'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6. 성장이 기대되는 중국 유제품시장

- 선진국에 비해 인당 소비량이 적어 향후 성장 기대 -
- 2017년 이후 수입량과 수입액 모두 성장세 보여 -

중국 유제품 시장은 유럽, 미국 등 유제품 소비 대국과 비교해 볼 때 1인당 소비량 기준으로 세계 평균 수준의 1/3에 그치고 있어 발전 잠재력이 매우 높다. 특히 유제품의 수입액은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중국 유제품 업계의 매출액도 2018년 마이너스 성장 이후 2019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된 동시에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유제품 시장은 눈여겨 볼만하다.

중국 유제품시장, 2019년 매출액과 생산량 모두 플러스로 전환

2014년 중국 유제품 업계 매출액은 3297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6.5% 성장한 이후 2015~2017년까지 매출 성장세가 지속적으로 약화됐고 2018년 수치는 급감해 3132억 위안까지 전년대비 12.8% 하락했다. 이는

2014년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하지만 2019년 중국 유제품 업계 매출액(11월 누적기준)은 3577억 위안을 기록하며, 전년대비 12.4% 성장했다.

2014~2019년(11월 누적) 중국 유제품 매출액 및 매출액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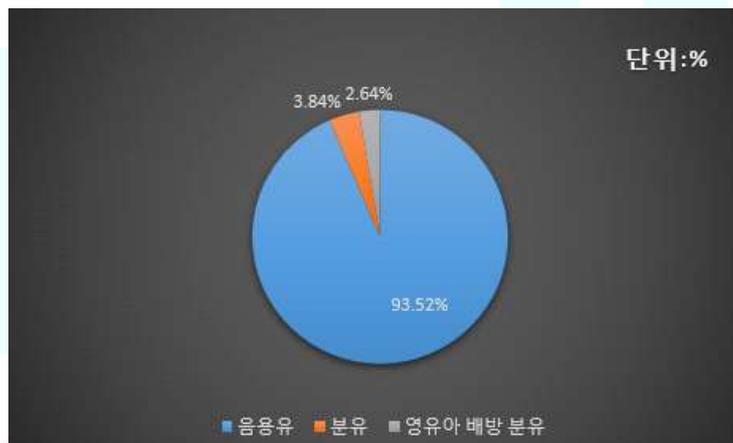


자료: 치엔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 유제품 음용유 위주, 상위 3개성이 생산량의 28% 차지

2019년 중국 유제품 생산량(11월 누적기준)을 통해 살펴보면 음용유는 전체 생산량의 93.5%를 차지했고 분유와 영유아 배방분유(조제분유) 생산량 비중은 각각 3.84%와 2.64%에 그쳤다. 중국 경공업연합회에 따르면 2019년 11월 누적 기준 중국 유제품 생산량은 2471만2000톤으로 전년대비 8.48% 증가해 2012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허베이성이 335만 톤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산둥성과 허난성이 각각 197만7985톤과 166만6549톤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비중을 살펴보면 상위 3개성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8.2%에 달했다.

2019년 1~11월에 중국의 유제품 제품별 비중



자료: 치엔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의 유제품 생산량 TOP10 지역

지역명	생산량(만 톤)
허베이성 (河北省)	335.6360
산둥성 (山东省)	197.7985
허난성 (河南省)	166.6549
안후이성 (安徽省)	114.8269
쓰촨성 (四川省)	107.6886
샨시성 (陕西省)	107.3025
지양쑤성 (江苏省)	104.9824
광둥성 (广东省)	89.4847
후베이성 (湖北省)	88.8451
랴오닝성 (辽宁省)	69.4941

자료: 중국 경공업연합회(中国轻工业总会)

독일·호주·뉴질랜드산 수입 유제품 판매 인기

2020년 1월 브랜드 순위통계에 따르면 10대 브랜드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독일(3개), 뉴질랜드(2개), 호주(2개),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가 각각 1개씩 포진돼 있다. 이 중 독일 기업 더야(Weidendorf 德亚)는 4만 4000박스를 판매하며 1위를 기록했고 더치카우(DutchCow 荷兰乳牛), 앙코르(Anchor 安佳) 판매량은 각각 3만9000박스과 3만6000박스를 기록하며 2위와 3위를 차지했다.

2020년 1월에 외국산 유제품 온라인 판매 TOP 10 브랜드

순위	브랜드	이미지	가격(위안)	국가
1	더야 (Weidendorf 德亚)		18~329	독일
2	더치카우 (DutchCow 荷兰乳牛)		25~428	프랑스
3	앙코르 (Anchor 安佳)		18~468	뉴질랜드

4	더 랜드 (THELAND 纽仕兰)		42~380	뉴질랜드
5	데본데일 (Devondale 德运)		53~372	호주
6	오스트레일리아 오운 (Australia's Own 澳牧)		29~384	호주
7	플레보멜 (Flevomel 风车牧场)		40~299	네덜란드
8	올덴버그 (Oldenburger 欧德堡)		39~139	독일
9	MUH (甘蒂牧场)		48~418	독일
10	알라 (Arla 爱氏晨曦)		17~269	덴마크

자료: 브랜드 순위

이리(伊利), 명니우(蒙牛)의 로컬 브랜드 매출액 상승

2019년 상반기 이리, 명니우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상온유제품 시장에서 각각 34.5%와 27.1%를 기록했으며, 저온 유제품 시장점유율은 각각 약 30%와 15%를 차지했다. 이리와 명니우는 중국 최대의 유제품 생산업체로 2014~2019년 상반기의 매출액은 모두 상승 추세를 유지했다.

2014~2019년 상반기에 이리(伊利)와 멩니우(蒙牛)의 매출액



자료: 치안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의 해외 유제품 수입은 2017년 이후로 꾸준한 성장세

중국 해관에 따르면 2019년 11월 누적 기준 중국 유제품 수입량은 285만8300톤으로 전년대비 8.3%가 증가했으며, 수입액은 109억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대비 8% 증가했다. 2017년 이후 유제품 수입량 및 수입액 모두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2019.11. 중국의 유제품 수입현황



자료: 중국 세관

코로나19 이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제품시장 바라봐야

허난성 유업협회 주바오루이(茹宝瑞) 사무총장은 KOTRA 정저우 무역관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이후 유제품 업체들이 가격 인하 등 방식을 통해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시장에서는 단기간에 공급 과잉과 유가 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장기적으로는 많은 유제품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하므로 하반기에는 단계적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중국 시장을 바라 볼 필요가 있다.

자료: 치안쯔안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 중국 유제품공업협회, 중국 경공업연합회(中国轻工业总会), 중국 세관, 브랜드 순위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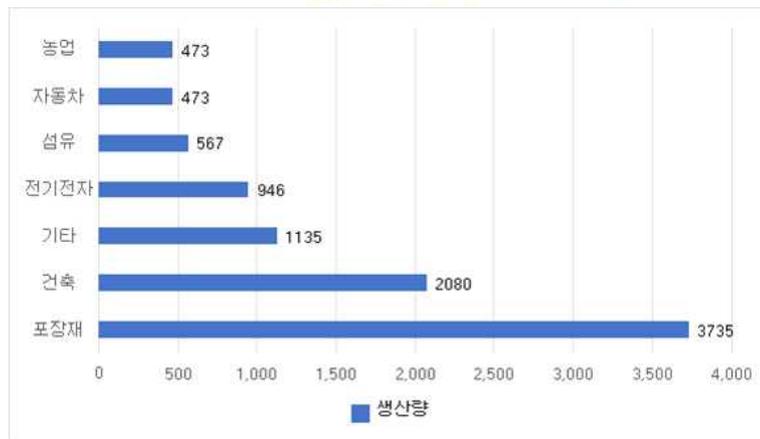
7. 터키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 동향

- '19년 터키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 102억 달러 시장 규모 -
- 플라스틱 수입 중 포장재 비중 77% 차지 -

□ 시장 동향

- '19년 기준 터키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은 약 102억달러이며, 터키내 플라스틱 생산량 940만 톤 중 플라스틱 포장재로 약 39%가 사용되고 있음.

'19년 터키 플라스틱 산업별 생산량
(단위: 천 톤)



자료: 터키 통계청, ITC Trade Statistics

- 전체 포장재 중 플라스틱은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4년간 연 2.2%씩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 골판지(2위, 25%), 유리(3위, 15%)
- 현재 총 1,423개의 업체가 PET, PVC, PP, PS, PE, HDPE, LPDE, PC 등의 플라스틱 원자재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 중임.
- (포장재 수요) Plaş Plastik CEO Velit Günay에 따르면, 최근 식습관의 변화는 간편포장식품, 냉동식품의 선호도를 증가시켰으며, 이에 따라 관련 식품 포장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 가처분 소득의 증가, 여성 노동 인구 증가는 과거 신선한 식품은 구매하고 조리하던 방식에서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최근 5년간 냉동식품 시장은 꾸준히 성장세를 기록하였으며, '19년도 188백만리라(약 31백만달러)의 시장규모를 기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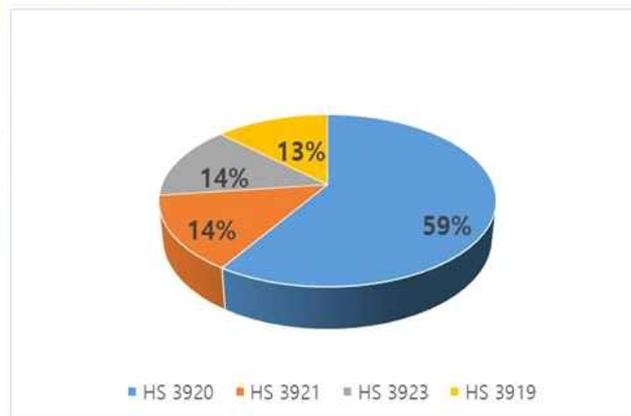
□ 수입동향

- 플라스틱 산업 전체 수입량 중 약 77%가 플라스틱 포장재를 만드는데 사용이 될 정도로, 수입의존도가 높은 산업임.
- * ('19년 기준) 플라스틱 전체 수입량 55.9만톤(25억 6천만 달러 규모),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량 43만톤(16억 8천만 달러 규모)
- 플라스틱 포장재는 총 4개의 HS Code로 터키 역내로 수입되고 있음.

HS Code	세부 품목명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음)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 상기 품목 중 HS Code 3920 제품은 전체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의 59%를 차지

HS 코드별 수입 비중



자료: PAGEV(터키 플라스틱산업협회)

- 터키의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 시장은 '18년 경제위기로 잠시 위축 되는 듯 했으나, '19년 증가세로 전환
- 한국, 중국, 미국을 제외하고 상위 10개국은 모두 유럽 국가들이 차지하고 있음.
 - 독일은 3년째 터키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시장 내 점유율 1위를 차지
- 한국은 매년 수입액이 조금씩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수입시장 내 4위로 여전히 높은 점유율 차지

최근 3년간 터키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 동향

(단위: 천 달러, %)

순위	국가명	2017		2018		2019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수입액	점유율
	전세계 수입액	1,896,387	100	1,676,044	100	1,685,998	100
1	독일	346,954	18.30	334,819	19.98	370,233	21.96
2	중국	316,931	16.71	264,869	15.80	270,658	16.05
3	이탈리아	171,661	9.05	146,996	8.77	166,631	9.88
4	대한민국	185,915	9.80	134,866	8.05	105,706	6.27
5	프랑스	94,626	4.99	99,436	5.93	102,501	6.08
6	미국	76,105	4.01	63,126	3.77	73,704	4.37

7	벨기에	65,072	3.43	69,985	4.18	61,402	3.64
8	영국	68,433	3.61	63,772	3.81	52,751	3.13
9	스페인	45,729	2.41	41,517	2.48	37,959	2.25
10	스위스	30,179	1.59	31,848	1.90	36,491	2.16

자료: Global Trade Atlas

□ 관세 및 규제

- HS Code 3919, 3920, 3921 제품에 대해 기본 수입관세는 6.5%가 부과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과 FTA 협정 체결국(한국 포함) 원산 제품은 기본 수입관세 면제
- HS Code 3923 제품은 기본 수입 관세가 6.5%가 부과되며 추가관세 25%가 부과됨. FTA 협정 체결국 원산 제품은 면제
 - HS Code 3923.40.10.10.00/3923.40.10.90.00 제품에 5.3%의 기본 수입관세가 부과되며 추가관세 25% 부과 중이나 FTA 협정 체결국(대한민국 포함) 원산 제품에 대하여 기본 수입관세 및 추가관세 면제 중으로 '13년 발효된 한-터키 FTA 협정으로 한국 제품은 무관세로 수출이 가능

HS Code 3919, 3920, 3921, 3923 터키 내 수입 관세율
(단위: %)

HS Code	관세율						
	EU 국가	FTA 체결국(대한민국 등)	싱가포르	GSP 국가			기타 국가
				후발개발도상국	특별 인센티브 수혜국	개발도상국	
3919	0	0	0	0	0	0	6.5
3920							
3921							
3923							
3923.40.10.10.00	0	0	0	0	0	0	5.3
3923.40.10.90.00							

자료: Tariff-tr.com

- 터키 정부는 일부 플라스틱 포장재에 대해 자국산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보호 목적으로 수입 감시제를 시행하고 있음.
 - 수입감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터키 수출을 위해서는 제품의 단가가 터키정부의 책정가보다 높아야 하며, 터키 상무부가 발급한 수입감시인증서(the certificate of surveillance)를 발급 받아 세관에서 요청 시 제출해야 함.

터키 플라스틱 포장재 수입감시제 시행 품목 및 단가 기준

HS Code	단가/무게/gross
3921.90.41.00.00	2.5 USD/kg/gross

3921.90.43.00.00	
3921.90.90.90.00	
3921.90.60.00.11	
3919.90.80.90.00	3 USD/kg/gross
3920.62.19.00.00	
3920.69.00.00.00	
3921.90.10.00.00	
3919.10.15.00.00	3.5USD/kg/gross
3919.10.80.20.00	
3919.90.80.30.11	
3919.90.80.30.19	
3921.12.00.00.00	
3920.51.00.00.00(두께가 10.5mm 초과일 경우)	6 USD/kg/gross
3920.51.00.00.00(두께가 10.5mm 이하인 경우)	10 USD/kg/gross
3923.21.00.00.19	3200 USD/ton/gross
3923.29.10.00.19	
3923.29.90.00.19	

자료: Tariff-tr.com

□ 시사점

- 터키의 플라스틱 포장재 시장은 연간 300만 톤 이상의 제품을 생산하며, '15-'19년 연평균 2.2%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 성장 예상
 - 1인 가구 증가, 여성의 노동참여 증가로 인한 간편식품 등에 대한 수요 및 식습관의 변화는 플라스틱 포장재의 수요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터키에는 1,400개 이상의 플라스틱 포장재 생산 업체가 영업 중이나, 여전히 플라스틱 전체 수입량의 77%를 포장재가 차지하는 만큼,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향후에도 수입 수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제품의 무분별한 유입을 막고, 자국업체 보호를 위한 수입감시제 및 추가관세 부과되고 있으나,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제품에 대하여는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이로 인한 한국산 제품은 품질과 가격경쟁력으로 인해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자료원: 터키 통계청, ITC Trade Statistics, PAGEV(터키 플라스틱산업협회), Euromonitor, Tariff-tr.com, 이스탄불 무역관 자료 종합 등

출처 ([KOTRA해외시장뉴스](#))